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2시
금요일전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에배 7시30분
수요일에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동 우 칼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중에 '가지 않는 길'이 있다. 그 시의 일부는 이렇다. "숲 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고, 그래서 ...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프로스트의 시에서처럼 인생 앞에는 누구나 가는 길과 아무도 가지 않는 두 갈래의 길이 놓인다. 바로 대로와 오솔길이다. 대로(大路), 곧 이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지금도 많이 다니는 길에는 위험이 없다. 더불어 새로운 것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에는 매력력이 있고, 그 안에 창조가 있다. 물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겐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길을 헤맬 수 있다. 무성한 잡초로 인해 발을 헛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가슴이 뛰는 것은 대로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 황금어장이며, 블루오션(Blue Ocean-무경쟁 시장)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은 누군가에 의해 곧 개척될 것이다. 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면 한다.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개척자, 선구자가 되길 바란다. 비록 그 길은 험하고, 외롭고, 비록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정신과 매력에 꼭 빠져 그 길을 가기 원한다.

주님도 우리에게 좁은 길로 오라 하셨다(마7:13). 날찍하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말고, 사람들이 별로 가지 좋아하지 않는 길인 좁은 길로 오라하셨다.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누구나 가는 길로 갈 것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파사팔코스(Coatzacoalcas)를 아침에 출발한 우리는 8시간을 달려서야 다음 집회 도시인 에스카르세가(Escarcega)에 도착할 수 있었다.

멕시코의 도로사정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단지 거리만 예상해서 도착 시간을 가늠했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보통 편도 1차선 도로이기에 대형트럭들이 가로막으면 꼼짝없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 멕시코인들이 워낙 낙천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말한다. 따라서 그들이 말해주는 시간에 두 배가

따(Lomabonita)와 같은 역사를 기대했지만, 그 많은 집회 가운데 어찌 늘 기대대로만 되겠는가? 목사님은 세미나와 집회에 최선을 다하셨다.

목회자 세미나에는 캄페체(Campeche)에서 목회하는 세사르(Cesar) 목사 부자(父子)와 마르코(Marco) 집사, 파사팔코스에서 예수스(Jesus) 목사 부부가 찾아왔다. 그리고 저녁집회에는 비야에르모사(Villahermosa)의 마리오(Mario) 목사가 찾아왔다. 늘 변함없이 찾아주는 멕시코의 의리맨들이다.

목사님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포기

람들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자들이 성경에 믿음의 페이지를 장식한 것 아닙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세사르 목사 부자나 예수스 목사 부부 등은 이 말씀을 들으러 이곳까지 왔다면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

저녁집회에는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멕시코 에스카르세가(Escarcega) 집회 광경

걸린다고 미리 각오하는 게 차라리 편안하다.

멕시코(Mexico) 여러 도시를 다니며 새로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 이제는 도로 이정표에 나오는 도시 이름들이 대부분 낮이 익다는 점이다. 하기가 그동안 65개 도시를 다녔으니 아무리 멕시코가 크다 하기로 그럴 만도 하지 않은가?

마리오(Mario) 목사 일행의 안내로 도착한 숙소에는 놀랍게도 변기 뚜껑조차 없었다. 파사팔코스와 달리 기온이 좀 높아서 그런지 모기도 설쳐댔다. 이래저래 심란했지만, 어찌랴?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길인데.

인구 15만의 작은 도시이기도 로마보니

하지 말고 보리떡을 강제한 사건처럼 하늘을 침노하라고 강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왔습니다.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법입니다. 침노는 불법인데 침노하면 침노를 당해주신다는 겁니다. 친구 집에 가서 보리떡을 강제한 사건, 불의한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가며 선처를 구했던 과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강경하면 응답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곧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

태나며, 각색 병자들이 단으로 올라와 고침을 받았다. 특히 교통사고로 다리에 보조대를 찬 여인이 안수를 받고 보조대를 풀 후 걷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귀로에는 멕시코시티(Mexico City)행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우리는 가까스로 애틀랜타(Atlanta)행 연결 편에 오를 수 있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며, 또한 언제나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는다



소카르세가 목회자 세미나



교통사고로 차고 있던 보조대를 떼고 걷는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출18:13~27)

귀를 열면 길이 보인다

기도한 성전 외벽에 귀 모형이 걸려 있는데, 혹시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귀 명칭이 명칭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귀가 열려서 잘 들어야 제대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귀가 열려야 영·혼·육이 성공할 수 있고, 귀가 열려야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제발 고집만 피우지 말고 남의 말 좀 들어라' 하는 심정으로 달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귀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귀가 막혀서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고집불통이요, 교만이 극에 달한 자들입니다. 내 고집, 내 주장만 옳다고 옆에서 하는 소리를 안 듣는 것은 망조(亡兆)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하지요? 천만에요. 도둑이 들었는데 개가 왜 안 짖었겠습니까? 다만 귀가 막혀서 안 들린 겁니다. 그래서 도둑에게 다 털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진정한 영장(英將)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실행한 내용을 기록해놓았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며 미디안 땅을 지날 때, 그의 장인이 사위의 소식을 듣고 딸 심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모세가 예전에 알던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장정만 60

저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을 잘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흠이 없는 사람,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백성들 위에 심부장과 오심부장, 백부장, 천부장으로 세우게.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만 자네에게 가지고 오게 하면 자네나 이 백성이 모두 지치지 않을 것이네.' 장인의 말을 듣고 보니 다 옳다고 여긴 모세는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이며, 여호와 의 이름을 감히 입 밖

흐르는 나병환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면 나올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사환인 게하시를 보내 요단강 물에 일곱 번 씻으라는 처방만 해주었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와 넘적 절하며 맞아주고 대단한 처방을 내려줄 줄 알았던 나아만 장군은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종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일도 못하십니까?"(왕하5:13)라고

진언했습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이 마

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단4).

귀를 열어 들어야 합니다. 다만 분별력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분별력이 없어 노인들의 말과 자기와 함께 한 소년들의 말 중에 후자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보다
니를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다**

를 택하였다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왕상12).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는 열지와 두령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가나안으로 나갔습니다. 이처럼 경청에 분별력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이 듣기 싫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에게 손대지 말라'는 아내의 충고를 무시했던 빌라도와 같아 평생 저주 아래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립니까? 삼손을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이 귀에 거슬립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거슬렀던 사울의 최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충고는 사실 듣기에 거북하고 거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달콤한 말만 듣다가는 이가 다 썩듯, 영·혼·육이 다 썩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의 말씀으로 받치 마십시오. 그 분의 모든 말씀은 충고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친다, 이렇게 하면 병난다' 이런 겁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잠6:23)?

저도 가끔 성도들을 경책할 때가 있습니다. 무척 조심스럽지요. 그러나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목사가 성도를 까네."라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까서 뭐 합니까?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뻔히 싫은 소리가 나올 줄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쓴소리나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8장 8절에는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일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열면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메사 귀를 크게 열어 쓴 소리도 경청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렘루아!



으로 내지 못하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그가 장인이라고는 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던 이드로의 말을 경청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모세가 귀를 열었기에 그에게 백성들을 치리할 다른 방도가 생기고 상생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체제는 지금 모든 조직에 활성화되었습니다. 단편적으로 저도 이 틀을 교회 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위에 교육을 통해 조장과 구역장을 세우고, 그 위에 전도사를 세우고, 다시 교구 목사, 그 위에 담임목사를 세워 일을 진행시킵니다.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중대한 일만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합니다. 만일 모든 일을 제가 처리해야 한다면 일에 잡혀서 세계 교구화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면 이처럼 길이 보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국가에 혁혁한 공을 세워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지만, 감옥 속에서는 진물이 질질

을 돌이켜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니 어린아이 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닫힌 자는 몰락하고,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길르앗과맛을 놓고 싸움을 하려고 할 때, 미가야는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시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가나 죽고 맙니다. 미가야의 충언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왕상22). 당대에 가장 큰 나라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의 교만함을 나무라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해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에 못방기 겠습니

▶ 법이 육체의 보약이듯 충언은 영혼의 보약이다

만미요, 부녀자를 합해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함은 물론이고, 영적 지도자로서 그의 위업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를 보니 많이 지쳐보였습니다. 왜 그런가하고 유심히 살펴봤더니, 사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담하고 재판하느라 진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일부터 대사까지 모세를 만나려는 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지친 게 아니라 백성도 지쳐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은 백성대로 그 순자를 기다리느라 거의 탈진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본 장인 이드로는 안 되겠다 싶어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보게 사위, 자네가 하는 일이 정말이지 선하지 못하네. 이대로 가다보면 자네와 백성 둘 다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네. 이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자네 혼자 다 하려고 하나?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게. 먼



사람이 태어나서 20세가 되기 전에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 중에 '너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일을 맡겨보면 '할 수 있다'라는 편보다 '나를 할 수 없다'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선한 습관이 후회 없는 삶을 낳는다

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기 전에 먼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샘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후에야,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2013년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제 뿌려놓은 습관입니다. 어제의 습관을 오늘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제일 쉽고도 제일 어려운 일이며, 생각보다 빠른 것이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기도하는 선한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습관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습관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된 것은 나를 증명하고 기록하는 비디오표와 신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습관, 선한 습관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통제하는 선한 습관입니다. 믿음과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감정의 기록에서 헤어지지 못하여 세월만 흘러 보내고 허무한 인생으로 살다가 가게 됩니다.

올해 슬로건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입니다. 이는 교회 건물이 변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가능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선한 습관을 갖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결단하는 2013년이 됩시다.

춘천예수중심교회 김근철 목사



'후회'란 지나고 난 다음에 잘못 되었다고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잃었느냐?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요, 명예를 잃었느냐?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었느냐? 그럼 모두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도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하다'(요6:63)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13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아깝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분노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는 등 건강을 회복하기에 힘쓰면서도, 영혼이 지금 천국의 문턱에서 걸려있고 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의 초점이 이 땅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전 15:50)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영혼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

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계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올해를 후회 없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 삶의 초점을 내 영혼의 때로 맞추어 봅시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는 해로 만들어 갑시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

망하며 그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부자는 돈만 믿고 자기의 영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다니 결국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영혼의 때를 먼저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 챙기고, 명예도 챙기고, 물질도 챙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또 한 해가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살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2013년에는 처음부터 내 영혼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시작해 봅시다.

울산예수중심교회 이택희 목사

JC Academy series

내 인생에 성령의 구름이 함께 하려면

지난 23일 열루체 웨딩 컨벤션 홀에서 열린 JC 아카데미에서는 이시대 목사의 '출애굽기 강해'가 이어졌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는 명령이 내려진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태어났습니다(출1:16). 이후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낸 40년은 어찌 보면 시간낭비요 헛된 것 같지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훈련이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라는 소명을 받은 모세는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기에(출4:10) 보낸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출4:13)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표적을 통해(출4:2~7) 당신께서 직접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 친히 능력을 부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며, 더욱이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출7~12장)을 내리신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고 애굽 땅에만 내린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되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기 위해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뿔뿔히 떨어져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임을 알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 번째 재앙(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벗어난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받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이를 통해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출12:21~23). 출애굽 이후 아말렉 군대와 싸운 사건(출17:8~16)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악한 것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모두 쳐 파한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와 행함으로 나아가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는 내 인생에 성령의 구름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뜻대로' 성막을 세우고 봉헌할 때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셨습니다(출40:16~38).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것이 되어 사방으로 옥여썹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낚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 들기를 뜨겁게 사모하는 우리 젊은 이들의 앞날이 밝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바란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혼·육의 거친 파도도 능히 뛰어넘는 '일등 항해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국진 기자



귀를 기울이세요

몇 년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14세부터 73세까지의 시민 1,200명에게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이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남성은 10대부터 50대까지, 그리고 여성은 10대부터 40대까지 가장 후회되는 일로 '공부 좀 할 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50대 여성의 가장 후회되는 일은 '애들 교육에 더 신경 쓸 걸'이었고, 60대와 70대에서는 자녀를 불문하고 '배우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담은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제식민지와 한국전쟁이라는 큰 격변을 겪으면서도 곳곳에 가정과 국가를 지켜냈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나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온 몸으로 부딪치며 청춘을 보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변화무쌍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세대나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큰 것을 보여주는 사례지요.

올해 우리 교단의 슬로건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송구영신에배와 신년축복성회를 통하여 '각 분야 최고의 선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힐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공부 좀 할 걸', '배우고 싶었는데'가 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2013년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익히시겠습니까?

신재식 전도사



미국 시카고의 최영대 집사 부부와 함께

멕시코(Mexico) 두 도시 집회를 어렵사리 마치고 경유지로 들른 애틀랜타(Atlanta)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뉴욕(New York)의 이윤주 권사, 암에서 고침 받고 이제의 전도사가 되어 열심히 사역중이란다. 또 마이애미(Miami)의 김재순 집사 일행은 8시간을 차로 달려왔다. 그리고 시카고(Chicago)의 최영대 집사 부부 등이 찾아왔다.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들을 대하니 무엇보다 기뻐했다.

애틀랜타의 서길벗 집사 부부는 목사님 뿐 아니라 많은 손님들을 치르느라 힘들 텐데도 조금도 힘든 기색 없이 오히려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감사했다. 지식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

그런데 시카고에서 온 최 집사 부부가 들려준 간증들이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다. 그의 간증을 통해 불같은 성격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려왔던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었다. 평양이 고향인 그는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었다고 한다.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대로 그는 사업에 성공하여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다녀왔다고 한다. 영어에 능한 것도 아닌데 미국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되었던 시카고 집회를 통해 그의 삶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첫 시카고 집회에 참석한 후,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가 체험한 바로는 진정 하나님의 종인데 주위에서 하도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통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송양원 목사님과 함께 서있는 목사님을 보았다. 음성이 들리는데 그는 순교의 길을 가는 종이라는 것이다. 그 꿈은 그의 모든 의심에 종지부를 찍어주었다. 더구나 두 번째 집회에서는 그에게서 귀신이 드러나 온 사지를 뒤흔들 소리를 지르다 떠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입에서 방언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사님을 대접하겠다고 레스토랑에 와서도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입은 방언을 하고 있었다. 당시 목사님과 우리 일행에게 금을 선물했는데 크기로 봐서 몇 천만 원은 호가할 것 같았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금을 목회에 보태 쓰라며 현지 목사님들에게 주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그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에게는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병이 있었다. 수시로 나타나는 설사증세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 병세에 호전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단번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호전되더니 드디어 6개월째 접어들자 완전히 멈췄고, 그렇게 속을 썩이던 장(臟)이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업의 비전을 열어주었다. 그 문제로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자 한국에 나오려고 송전도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이 이번에 멕시코 집회 차 애틀랜타로 오신다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즉시 애틀랜타로 날아와 목사님을 만나 기도를 받았다. 그리고 집회를 마친 후에도 다시 애틀랜타로 찾아와 목사님을 대접했다. 그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일생의 최대 축복이라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다.

간증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는 그의 모습은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다. 그는 두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한 번은 사무실에 있는데 몸 반쪽에 갑자기 마비와 와 쓰러졌다.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들을 부르라는 음성을 듣고 급히 아들 모세를 불렀다. 그러자 모세가 달려와 그를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고통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렇게 20분의 방언기도를

통해 그는 깨끗함을 받았다.

또 한 번은 새벽에 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사슴이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확인하느라 뚝뚝 건드렸는데, 갑자기 사슴이 벌떡 일어나더니 뿔로 그를 뺨다 박더라. 아뵏 사슴은 워낙 커서 덩치가 황소만하다고 한다. 다행히 뿔이 바지에 끼었기 망정이지 조금이라도 위로 받쳤다면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슴이 그를 번쩍 들어 빙빙 돌리더니 바닥에 처 박고는 놀러대는 통에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먹을 뽕뽕하게 쥐고 사슴 눈을 치라는 음성이 들렸다.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계속 사슴의 눈을 때렸다. 그러자 사슴이 그에게서 떨어져나가 살 수 있었다고 한다.

패른 말을 더듬으며, 패른 울먹이며 쏟아내는 그의 간증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함께 한 이윤주 전도사, 김재순 집사 등은 최 집사와 함께 얼마나 죽이 잘 맞는 자 아침부터 시작된 그들의 간증 릴레이는 만나질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성령으로 하나 된 믿음의 동질성이 그들을 서로 뜨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최 집사는 앞으로 목사님의 선교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집사 부부, 이윤주 전도사, 김재순 집사, 서길벗 집사 부부 등 이번엔 함께 한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하나님의 역사에 기본 좋은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이었다.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이며

공짜로 먹는 보약이고,

가장 아름다워 질 수 있는 마음제다

그리고 웃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메아리다

웃지! 웃어보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4편 2절)

시간의 효율성

::Edu Section::

내가 드린 노력과 얻은 결과물의 비율을 '효율'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효율성'은 투자한 시간에 대비해 높은 성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빈부에 관계없이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허락받는다.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를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기상 후에 한 시간을 투자하면 뒷산을 산책할 수도 있지만, 이불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며 푹눕 수도 있다. 똑같은 한 시간이지만, 뒷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과 이불 아래에서 꿈지락거리

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각각 얻게 되는 결과는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매사가 그렇다. 주어진 시간을 100% 잘 활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면서도 주어진 일을 미루며 자의건 타의건 간에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시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았다.

우선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를 설정하면 주어진 시간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며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한 달, 1년의 계

획을 세워서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빠른 템포로 일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불평하거나 일의 결과에만 급급하다 보면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여 일을 시작하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집중력을 발휘해 임무를 완수하면 다음 일에 착수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세 번째 방법은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방해물을 찾아내야 한다. 방해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면 서두르지 말고 방

해물을 제거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은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가진 내외부적 요인을 잘 파악하여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지 스스로 관찰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의 결과도 사뭇 다르다는 것을 상기하자.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시간을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윤택함으로 보장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학원장 오자유 집사